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며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병이 들게 되어 있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가치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남녀의 만남에 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볼 때, 남녀 간의 사랑에 행복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은 참 나적인 행복을 줄 뿐 아픈 상처와 괴로움만 남기고 사라져 갑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욕망의 이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고로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여 물질을 쌓아 놓은 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곳에는 역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을 쥐면 행복을 누릴까 하여 권력을 잡아보았지만 역시 거기에도 행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는 왜 이러한 실패를 거듭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가치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인생철학을 가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철학이 많

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온전한 철학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철학을 내세웠더라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온전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철학이란 생의 목적과 이념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를 말하는 데 오늘날까지 생의 목적과 이념을 올바르게 설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철학이 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왜 생의 목적과 이념이 잘못 설정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모든 인생들의 주체 영이 바로 마귀 영이었기 때문이며 인생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영은 마귀의 생각밖에 못하므로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주는 욕망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욕망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한계가 있는 철학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요 행복의 영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주체 영이 마귀 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피가 썩고, 늙음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의식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한계가 그어져 있는 좁다란 철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사람의 주체 영은 하나님



구세주 조희성님 존영

의 영이었으며 그때는 인간(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불행은 찾아보려야 찾을 수 없고 기쁨과 희열과 영광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 것은 사람들 속에 그 증거가 남아 있으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 양심이 주체 영이었고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아팔로 생명의 영이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입니다.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의 힘으로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인이라 자처하는 과학자들에게 "사람이 왜 사는냐?"고 물으면 그들은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다만 살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학문 또한 학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진리추구가 그 목적이며 진리는 변하지 않는 생명 속에 존재하는 것인데 사람이 왜 사는지, 풀과 나무가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학박문이 나와야 사람이 왜 살며, 왜 죽으며, 사람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

에 사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이기 위하여 산다' 인간의 본향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여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주체 영이었던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므로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마귀의 영과 싸워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이요 이념입니다.

우리의 조상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식이 갖은 고생 끝에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무궁토록 살려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무궁토록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든지 마음에 그늘이 진다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려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잠시만 기쁘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면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해야 하는 것이 그 기쁨이 식어버린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바로 영생이요, 영생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기쁨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양심의 기쁨이며 양심의 기쁨은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기쁨은 잠시 후에는 식어버립니다. '나'라는 영이 욕망을 충족시킬 때에는 잠시 잠깐의 쾌락이 있는지는 몰라도 다음 순간 더 큰 욕망 앞에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 영이 작용할 때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는 말할 수 없이 우울하고 몸이 무겁고 말할 수 없이 마음에 괴로움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라는 것을 아낌없이 던져버리고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 보십시오. '나'를 던져 버릴 때에 비로소 기쁨의 신인 하나님이 내게 되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신이 점령하시는 고로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니 이 사람을 봐도 즐겁고, 저 사람을 봐도 즐겁고, 저 사람을 봐도 천사같고, 이 사람을 봐도 꽃과 같이 아름답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상대방도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마귀의 마음 즉 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귀 새끼는 누구를 봐도 도둑놈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봐도 도둑놈, 저 사람을 봐도 도둑놈처럼 보이는 것은 자기가 도둑놈이고 자기가 바로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귀인 고로 누구든지 마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 마디를 해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이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지난 호에 감정과 신체의 관계를 통해 심리와 생리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음을 알았다. 이제 어떤 생리적 변화도 심리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외모'는 자기의 이력서다.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때마다 마음과 얼굴을 비교해보면 안다. 속된 말로 "생김 대로 논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사람의 외모가 그 마음의 습성을 정확히 대변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 세상에는 외모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 닮는다. 금슬이 좋은 부부가 서로 많이 닮는다고 말할 한다.

두 번째,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와 뇌가 성장해감에 따라 동시에 지능과 정신력이 발달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어 노쇠해감에 따라 지능과 정신력은 쇠퇴한다.

세 번째, 술을 마시면 혈액 속의 알콜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정신상태도 점차 혼미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담배 또는 마리화나 대마초, LSD 등 환각제를 몸에 흡수하면 망상성 정신분열 증상을 보여 환청, 환상, 불안, 과대망상 등이 초래되며 극단적인 감정, 과잉반응으로 싸움이나 폭력행위가 일어난다.

네 번째, 과다출혈에 의한 혈압의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작용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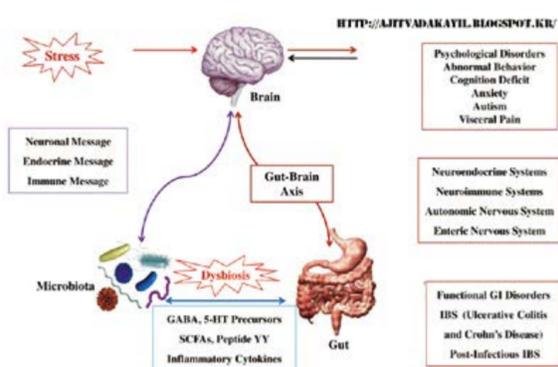
저하는 정신을 혼몽하게 한다.

다섯 번째, 신체기관의 환경액(호르몬, 담즙 등)에서 부신(副腎)의 분비물이 없어지면 환자는 깊은 우울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냉혈동물과 비슷해진다. 갑상선의 기능장애는 신경이나 정신의 흥분, 혹은 무감동을 야기한다. 도덕 면에서의 백치, 정신박약아, 그리고 범죄자는 이 분비선에 장애가 있는 집안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유전이다.

여섯 번째, 생식선을 제거하면 성인이라 하더라도 정신상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한다. 옛날의 환관들을 생각해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육체·생리적 상태 하나하나의 정신·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정신에 이상이 오는 것이다. 다만 두뇌는 정신작용의 사령탑으로서 '생각의 근원'이 아니라 '생각의 증폭기'일 뿐이다. 온 몸이 스며있는 생각을 두뇌는 다만 증폭해서 밖으로 보낼 뿐이다.

생리(生理)가 심리(心理)를 자극할 때



심리가 생리를 자극할 때

강조하건대 지난 호에서 언급하였듯이 자극의 수용지점에 의해 변화의 선후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마음에 의해 육체에 미치는 예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스트레스 학설>로 유명한 한스 세리에 박사는 우리 신체의 병은 긴장·압박감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두 번째,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은 대뇌 피질에 가해진 감각 자극의 원

인이 되어 자율계 기능과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세 번째, 정신의학과 신체의학으로 이분된 것을 오늘날 통합하여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정신신체 의학'이 대두되었다.

네 번째, 생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외부로 정보화하여 그것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기법인 '바이오피드백'이 유행하게 되었다. 환자 자신의 심리상태나 마음가짐의 미

묘한 변화가 정밀한 기계를 통해 근육 긴장도, 피부체온, 혈압, 심장박동수, 뇌파와 같은 생리의 변화로 반영된다.

다섯 번째,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이 의식적인 거짓말을 할 때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 초래되는 신체 내부의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복수기록기(polygraph)이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리적 흥분 갈등 초조 불안 공포 긴장 상태가 초래되기 마련이고, 이 심리적 변화는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여섯 번째, 이상구 박사에 의해 널리 알려졌듯이 웃음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해 인체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T림프구를 강력하게 해준다.

일곱 번째, 간절한 염원 기도 확고한 신념은 물질계, 곧 물의 성질도 변화시키듯 타인의 감정도 움직인다.

여덟 번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감정에 의해 즉각적인 조직이나 체액에 놀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과거 독일군에 의해 죽음을 선고받은 어느 벨기에 여성은 처형 전날 밤,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지금도 회자된다.

인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불로장생이 가능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확실히 심리상태는 생리상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집중력으로써 우리의 자율신경을 포함하여 신체조작 인위적으로 개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마음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질병, 더 나아가 수명의 획기적 연장을 꾀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될 것이다.

장수(長壽)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박상철(69)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뉴바이올로지 전공 석좌 교수는 "오래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욕망이지만 노화는 숙명"이라면서도 "인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불로장생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2009년 사이 국내 최최소 100세인 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내외에 장수에 대한 인식 대전환을 일으킨 인물이다. 계속된 과학과 기술의 놀라운 힘은 인간의 불로장생에 집중되게 되면 머지않아 100세 청춘시대도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김주호 기자